

## 청화백자: 실�크로드 문명교류의 산물

### 강사 소개



강사: 김중순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계명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교종교학 석사학위를, 짜르부 릭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계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실�크로드 연구원장과 국제 저널 Acta Koreana와 Acta Via Serica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샤머니즘을 비롯한 고대종교와 문명 교류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Birdman: Pathfinder of Korean Shamanism, 『문화의 이해와 다문화교육』, 『이슬람, 그 반역의 역사』, 『횡으로 읽는 문명 이야기: 중반구와 글로벌 르네상스』 등이 있다.

### 강의 요약

인류는 1만2000년 전 처음으로 토기를 만들었다. 이후 도기(陶器)시대를 지나 자기(瓷器)시대에 이른 것은 중국의 경우 8세기, 우리나라는 9세기 무렵이었다. 600~800°C에서 구워내는 토기에서 1300°C의 고화도(高火度)에서 구워내는 자기에 이르는 시간이 무려 1만1000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하얀 그릇 면에 코발트로 장식하는 새로운 미감의 청화백자가 중반구에 유입된 것은 14세기에 티무르왕조와 이집트 맘루크왕조가 중심세력을 이루었을 때이다. 중국의 도자기는 중반구를 통해 서반구 유럽으로 순식간에 전달이 되었다. 청화백자(靑畫白磁; Blue and White Porcelain)의 등장은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나타난 가장 글로벌한 문화현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중국 도자기는 무엇보다도 유럽 사회의 식생활과 위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혁신적인 상품이었다. 가장 중국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청화백자가 수요자의 기호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도자기라는 하나의 제품 안에 중반구와 서반구라는 다른 두 지역의 기술과 문화를 혼합하여 담아냈다. 그야말로 교류의 산물로 재탄생한 것이다.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청화백자야말로 가장 르네상스적인 상품이며, 르네상스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진 심미적 안목의 조합이며, 도예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제작기술이 상호교류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이루어낸 결정체이다.